

경기도

제2청,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협약 체결



경기북부지역 축산농가들의 축사화재 피해를 덜기 위해 전기안전진단 협약이 체결됐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축사시설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지역축협과 전기안전진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경기북부지역 한우, 젓소, 돼지, 닭 등 사육농가 3천호를 대상으로 정밀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비용은 도 및 시·군, 전기안전공사 등이 분담하게 된다.

진단결과에 따른 수리비용은 농가가 부담한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축사화재는 연간 200여건에 달하고 피해액도 소방서 추산 56억여원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 축사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진단 협약은 축사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전기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수년간 공들여 개량해 온 가축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 2청은 축사화재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가축개량에도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뿐 아니라 폐

사축으로 인한 질병발생, 환경오염 등 2차 문제도 발생되고 있어 화재주요 원인인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협약 실시에 나서게 됐다.

경기도 제2청은 이번 일제진단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평군, 7월부터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실시

경기 가평군은 3,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은 한우, 젓소, 돼지, 닭 등 사육농가 370호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작동상태, 가배선 또는 비닐전선 사용여부 등 옥내배선 안전상태, 전기기계 절연상태 및 배선기구 부식 상태 등을 점검한다.

군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동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부품 점검 시 무상으로 교체해 주며, 위험설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를 통해 수리 요청지도를 실시기로 했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7개반 1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각 농가를 순회하며 축사전기안전점검과 전기안전사용방법에 대한 현장안전지도를 병행해 전기안전생활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사화재는 피해규모가 크고 질병 발생은 물론 폐기물처리 등 재산피해 외에 2차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며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 지원하며 축산경영안정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내 축산농가 세 곳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억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남도

축산농가 여름철 기상재해 대책 수립

경남도가 여름철 기상재해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축산농가 여름철 기상재해 대책 요령은 다음과 같다.

◆ 호우 시 축사관리

잦은 비로 인해 저지대 축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축사 주위 배수로를 정비하고 축사 내 높은 습도 방지를 위해 환풍기를 수시 가동하는 등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세균 번식이 없도록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축사가 침수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배수하고 축사 내·외부 청소 및 소독을 실시, 축사 침수로 사육동물이 폐사하면 신속한 매몰·소각 처리로 부패 등에 따른 2차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한다.

또 축사에 습기가 많을 경우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으므로 전기 과부하 여부 등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혹서기 가축 사양관리

날씨가 무더워지면 가축들이 더위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고 생산성 저하와 함께 폐사의 위험이 커진다.

가축별 한계온도(한우·닭 30℃, 젖소·돼지 27℃ 이상)가 지속되면 열사 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축사 천장이나 벽에 단열재를 붙이고 지붕에 그늘막을 설치, 환기창이나 통풍창을 넓혀 항상 시원한 바람이 축사 안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급수기는 주기적으로 청소

해 오염된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낮에는 축사 내와 주변에 찬물을 뿌려 더운 공기를 식혀준다.

사료에는 비타민과 광물질을 충분히 급여, 가축의 면역력을 높인다.

가축 체온이 올라가면 사료효율과 체중증가율, 산란율 등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여름철에는 평소 사육밀도를 돼지는 10%, 닭은 20% 정도를 줄여야 한다.

경상북도

여름철 가축방역 추진 강화

경상북도에서는 혹서(酷暑)·장마·수해 등에 따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여름철 사양관리, 가축방역요령을 마련, 8월말까지 강도 높은 가축방역활동을 전개, 양축농가에서도 방역관리에 철저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열사병, 일사병, 닭뉴캐슬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축사내부에 통풍이 잘 되도록 환풍기, 안개분무시설, 그늘막 등 방서(防暑)시설을 설치하고 방충망 설치모기, 파리 등 해충을 구제함과 아울러 축사주변 운동장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 깨끗한 물과 신선한 사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다가옴에 따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장, 축사입구에 소독조를 설치, 차량 출입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비가 오기 전 또는 비가 오는 중에는 매일 1회 이상 축사내부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 비가 많이 올 경우 배수로

를 설치하고, 축사가 물에 잠겼을 때는 신속히 물을 빼고, 소독을 실시하며 주변에 대해서는 살충제 등을 뿌려 해충을 구제해야 한다.

사료급여통과 급수조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시로 건조시켜 사료에 곰팡이나 세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소독약품은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특히 생석회는 물기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재의 위험(물과 반응 시 200°C 이상 고온 발생)이 있으므로 약품 보관 장소 주위에는 인화물질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가 온 뒤에는 축사 안팎과 분뇨처리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및 구충제 투여 등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환축 발생 시는 읍·면이나 시·군,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해 줄 것과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신속하게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업수의사에게 안내하고 수해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및 방역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 무료신고전용전화 : 1588-4060, 080-326-0015

## 전라남도

### 축산기술연구소, 여름철 전염병 등 소독·예방 관리 홍보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구제역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낮아졌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활동 및 양축농가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시·군 방역관계관과 한우·육우·양돈·양계·오리 등 생산자

단체 대표 등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닭·오리 사육 성수기를 맞아 과일사육으로 닭뉴캐슬병, 티푸스,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각 질병별 방역대책도 강화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이 질병들은 적정 일령에 음수나 분무를 통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하절기 가축 방역관리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장마·수해·혹서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 오는 8월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하절기 가축질병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 이에 따른 장마, 수해, 혹서기별 일반 방역관리 요령 및 축종별(소, 돼지, 닭) 주요 질병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요령 등을 담고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동물위생연구소 및 행정시에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농가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수의사를 동원, 농장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동시에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방역대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